금주의 법구-〈화엄경〉
이별에 애착해 답답한 것은 근심이며
눈물을 뿌리며 슬퍼함은 탄식이다.
근심과 괴로움은 고통을 불러들인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0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5월 21일)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삶에 지친 2030세대 '공감포교'로 사로잡자

공감·공유 '2030 또래 집단' 육성 필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취업준비생의 거리'로 불리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옆 예술의거리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만 되면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광주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가 운영하는 청년식당에서 무료식사를 하기 위해 100여 명의 고시생들이 길게 줄을 서는 것이다.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은 "엄마가 차려주듯 한 따뜻한 밥 한끼에 많은 이들이 찾아온다. 마음에 작은 불심을 심는 것은 공감하는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2030세대 전법 포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는 불교 내 또래 집단 육성의 목소리가 높다.

20대 어려움 공감 · 해법 공유

20대의 대표적인 고민은 '취업' 그리고, 대학 진학으로 인한 '타향살이 어려움' 등이다. 불교계에서는 이 같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청년모임을 통해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먼저 혜민 스님이 이끄는 마음치유학교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일요일 취업을 위해 서울살이를 시작한 2030세대를 대상으로 후원프로그램 '어서와, 서울 살기 힘들지'를 진행한다. 20여 명의 서울 상경 학생들은 서로 서울살이 희노애락과 서울에서 잘 사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힐링멘토 법륜 스님이 지도하는 정토회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두북정토수련원에서 '슬기로운 여름방학 깨달음학교'를 개최한다. 대학생 및 미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깨달음학교는 자급자족 라이프 등 대학생들의 홀로서기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다.

대한불교진흥원도 7월 28~29일 경주 황룡원에서 청년들의 마음챙김 연수회 '심쉼풀이'를 연다. 불교계 청년공동체인 절오빠절언니와 함께하는 심쉼풀이에서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1월 노량진 고시촌에 개소한 마음충전소(소장 등명)도 스님과 고시생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밥한끼' '스님과의 차한잔' '마음충전 10분 텐트' 등을 운영한다.

박철홍 마음치유학교 지도사는 "20대가 쉽게 마음을 여는 이들은 또래인 20대"라며 "함께 꿈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30대 취미 · 휴식 주제로 소통

대부분 직장생활로 상시적으로 모이기 힘든 30대의 경우 '취미'와 '휴식'을 주제로 한 사찰에서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먼저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청년회 차원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과 토요일 법회를 연다. 이중 화요법회는 이른바 치유법회다. 법회서는 직장인 도반들이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회 참석 인원만 15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이 마음비추기, 불화그리기, 율동단 등 취미활동도 함께 할 수 있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도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30대 직장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명상을 진행 중에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아예 30대 직장인을 주 대상으로 발레와 요가 등 색다른 문화강좌를 개설했다. 7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발레, 7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요가강좌가 열린다. 타이틀도 2030세대를 위한 워라밸 문화강좌다.

20대는 취업 어려움 공유
30대는 워라밸 · 휴식 선호
사찰 · 단체 관련 강좌 시작

취업과 직장생활 어려움들
또래간 공동체에서 해소해
구심될 선도그룹 설립 유도

봉은사 포교국 관계자는 "워라밸로 대변되는 일과 생활의 조화에 대한 30대의 관심으로 이번 문화강좌를 개설했다. 취미생활로 모인 이들을 사찰 수행 모임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30세대들의 공통점은 어려움, 혹은 취미 등을 함께 공유하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2014년 전국 사찰불교대학 재학생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불교대학 재학생 중 20대와 30대는 2%에 불과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비슷한 연령대의 도반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2030세대들은 또래 집단 간 공감과 공유를 통해 자기 해법을 모색하는 만큼 포교 단체 안에서 공유 · 공감 형성을 선도할 또래 그룹을 우선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20대와 30대 불교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선도그룹을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세대가 느끼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구심축이 될 소그룹을 먼저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는 달라도 본질은 하나" (사)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김희중 대주교, 이하 종지협)는 6월 16~22일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서 '2018 이웃종교 체험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이번 순례는 기독교 한 종파인 루터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종교 간 유대를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순례단에는 공동대표인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가톨릭 대주교,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 관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이 참석했다. 사진은 6월 20일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데릭 교회 순례 후 맞은편 아말리엔보르 궁전광장에서 기념촬영 모습.

글=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생명탈핵순례, '생명헌장' 결실 이어지나

순례단, 21일 중간보고회… 하반기 순례 재개

올해 12월 인도서 시작해
내년 바티칸서 회향 계획
17개국 6천km 도보 순례

'세계생명헌장' 제정 추진
달라이라마 등 헌정 예정

생명을 파괴하는 핵발전서 벗어나자는 취지의 생명탈핵운동 하반기 순례가 재개된다.

생명탈핵실크로드순례단(단장 · 공동대표 이원영)은 "올해 12월 인도부터 다시 하반기 순례를 시작해 내년 12월 바티칸에 도착할 계획"이라고 6월 21일 생명탈핵실크로드 중간보고회 자리서 밝혔다.

하반기 일정은 인도, 네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 순으로 총 17개국 6,000km 여정을 도보로 순례한다. 특히 내년 10월 하순으로 예정된 유럽 지역경로는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가 로마 방문시 걸어갔던 '알프스 루트(Alps Route)'를 따라 순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순례단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서울 광화문서 인도까지 총 10개국 4,000km 여정으로 상반기 도보순례를 마쳤다.

생명탈핵실크로드순례단장인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직접 걸으며 순례를 하니 평소 사용하지 않던 신경까지 자극돼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다만 참여자가 많지 않아 혼자 걸을 때가 많았다. 전 일정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주일, 며칠만이라도 좋으니 함께 걷고 동참하는 이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순례 초기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한 '세계생명헌장' 제정 진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교수는 "헌장 서울안은 지난 2016년 월정사서 열렸던 국제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이번 4차 세미나까지 많은 토론을 거쳐 보완해왔다"며 "달라이라마와 교황에게 헌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다듬는 단계"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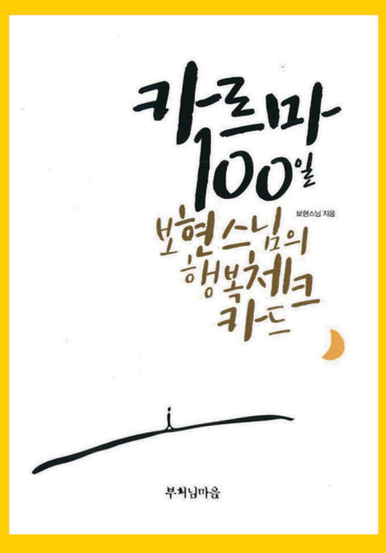
헌장은 순례 출발 전 연말에 공표할 계획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헌장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핵발전은 생명파괴적 행위이므로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교수는 "생명탈핵순례를 통해 전 세계 450개 핵발전소가 안전하게 관리되면서 폐기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이자 지향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들어 기쁘다. 순례단도 이 분위기에 동참해 달라이라마, 교황과 손잡고 함께 지구촌 안전과 생명을 돌보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전국 사찰 여름방학 템플스테이 A5 | 범어사 흥교 스님 초청법회 지상중계 A6





추천도서!
좋은사람! 좋은책!
전국서점 절찬판매

[타래] 베스트셀러 저자! 이 시대의 최고 힐링멘토로 우리곁에 돌아온,
보현스님의 신간출시! [카르마 100일 보현스님의 행복체크카드]

YouTube
부처님마을 [보현스님]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과거 인기가수 출신. 80년대 아이유로 불릴만큼 각종 CF는 물론 KBS드라마 [사모곡] OST '사모곡' 과 '설마' 등을 불렀고, 가수 이선희와 함께 KBS 신인가수상 후보까지 오르면서 스타반열에 올랐다.
○최근 KBS2 [여유만만]과 TV조선 [대찬인생], KBS [아침마당], TV조선 [별별톡쇼], KBS2 [속보이는TV 人사이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등에 출연하면서 다시 한 번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현재 '보현스님의 카르마 100일' 강의로 유튜브(You Tube) 구독자 수 3,500을 돌파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379.2010